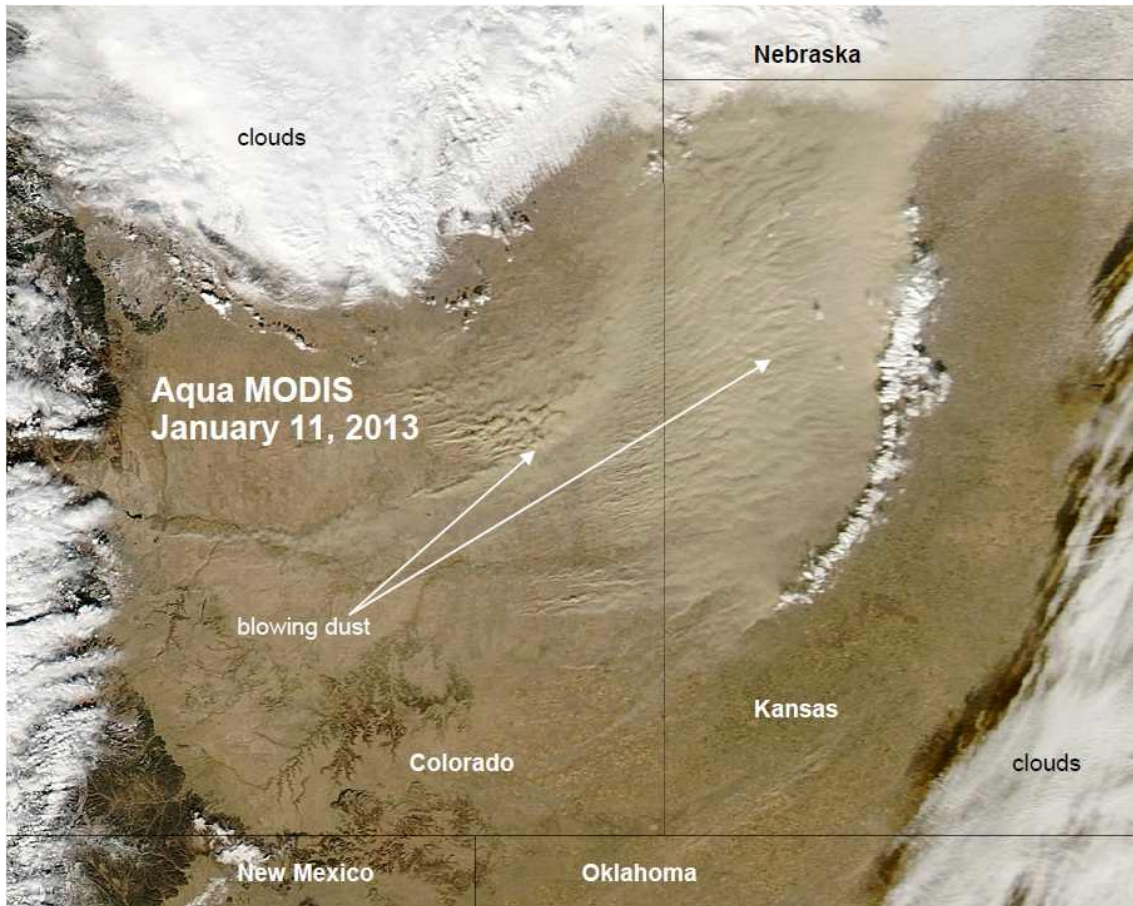


※ 2월 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



1월 중 미국 대평원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부 지역에는 가뭄이 심화되었다. 1월 말 기준으로 오클라호마(69%), 사우스다코타(66%), 네브라스카(50%) 겨울밀 작황의 최소 절반이 나쁨/매우 나쁨 등급이었다. 캔자스 주는 1월 27일 기준 겨울밀의 39%가 나쁨/매우 나쁨 등급이었다. USDA/NASS는 또한 캔자스 주 겨울밀의 19%가 강풍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13%는 가벼운 피해, 5%는 보통 피해, 1%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1월 중 강풍이 가장 심했던 날은 11일로 콜로라도 동부와 캔자스 서부에서 모래바람이 목격되었다. 1월 11일 콜로라도 푸에블로(Pueblo)에서 측정한 풍속은 최대 62mph, 캔자스 가든시티(Garden City)에서 측정한 풍속은 최대 60mph였다.

□ 미국 기후 현황(1/27~2/2)

연이은 폭풍이 미국 동부에 많은 양의 비를 내렸다. 미국 중남부에서 오대호 연안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애팔래치아산맥 남부에서 대서양 연안 중북부에 이르는 지역에 가장 많은 비(강수량 2~4인치)가 내렸으며 애팔래치아산맥 중부 및 남부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콘벨트 중부, 중서부, 남동부의 가뭄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미국 중부에는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아 대평원의 적색경질밀(HRW) 재배지역에서는 밀이 가뭄 피해를 받고 입모율이 불량한 상황이다. 오클라호마 동부와 캔자스 남동부의 주간 총 강수량은 1인치 남짓에 불과하다. 1월말 폭풍우가 미국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 가뭄을 해갈시켰으나 태평양연안에서 로키산맥에 이르는 지역의 전반적인 1월 강수량은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평원 남부에서 중서부에 이르는 지역은 수일간 기록적인 온난기후로 인해 주간기온이 평년보다 화씨 10도 이상 높았었다. 그러나 남쪽으로 캔자스 북동부 및 미주리 북부에 이르는 지역은 주 후반(2월 1일)에 냉풍이 불어 기온이 화씨 0도 또는 그 이하로 하락했다.

□ 미국 농업 요약(1/28~2/3)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 수준이거나 평년보다 높았다. 특히 텍사스와 미시시피 하류지역 기온은 평년보다 화씨 10도 이상 높았다. 미국 국토의 동쪽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비가 내렸다. 주초에 폭풍전선으로 인해 콘벨트와 애팔래치안 산맥 지역의 강수량은 2인치 이상이었다. 그러나 멕시코만 총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다. 플로리다 주는 기온이 지속적으로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이상건조기후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과채작물이 평년보다 빠른 속도로 성숙하고 있으며 관개작업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기온은 며칠간 서늘했던 때를 제외하면 평년에 가까웠다.

□ 세계 기후 현황(1/27~2/2)

- 유럽: 유럽대륙 기후가 온난하고 습하여 북유럽에서는 동면기 겨울밀에게 도움이 되었고 남유럽에서는 생육발달기의 겨울밀에게 도움이 되었다. 일련의 대서양성 태풍전선이 형성되어 중부 및 북부유럽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 비(강수량 20~70mm)를 내렸으며 이에 봄 생육발달에 필요한 토양저수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온난한 대서양성 기단(평년보다 2~6°C 높음)의 영향으로 유럽 대륙 대부분의 지역에서 쌓였던 눈이 녹았으며 이에 겨울밀과 유지작물이 혹한기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남유럽에는 가벼운 소나기(강수량 2~25mm)가 내려 생육발달기인 겨울밀에게 필요한 토양수분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 구소련(서부): 약한 한랭전선 한 쌍이 구소련(서부)지역의 중부와 서부에 간헐적인 비와 눈(강수량 기준 2~15mm)을 내렸다. 북부 재배지역에는 눈이 추가로 내린 후 쌓여 겨울밀에게 보온효과를 더해주었다. 그러나 남쪽 재배지역에는 온난기단(평년보다 최고 6°C 높음)으로 인해 쌓였던 눈이 녹았다.
- 호주: 열대태풍 '오스왈드'의 영향으로 호주 동부에 비가 계속 내렸으며 퀸즐랜드 남동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동부에 호우(강수량 25~200mm, 국지적으로 약 400mm)가 내렸다. 태풍 오스왈드의 영향으로 해안지대에는 홍수가 발생했으나 건조했던 내륙지역의 면화와 수수 재배지역에서 표토층 수분이 증가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이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부에 비가 재개되었으나 일부 주산지에 건조함이 계속 남아있다. 산루이스(San Luis)에서 산타페(Santa Fe)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 가장 많은 비(강수량 25~100mm)가 내렸고 다른 지역의 강수량은 10mm 수준이다. 그러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서쪽 외곽의 재배지역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조기후가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2~3°C 높으며 낮 최고기온은 섭씨 30도 중후반에 이르므로 수분증발율이 높은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에는 보통~약한 소나기(강수량 5~50mm)가 계속 내렸다. 그러나 포르모사(Formosa)와 차코(Chaco)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 북부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2~4°C 높으며 낮 최고기온은 수일 동안 섭씨 40°C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늦파종한 옥수수과 대두의 발아속도가 가속화되었으나 수분증발율이 높은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의하면 옥수수와 대두 파종율은 각각 96%와 98%이다.
- 브라질: 남부지역은 금주에도 지속적으로 계절적이지 않게 기후가 건조하여 옥수수와 대두의 수분이 감소했다. 이 지역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2~3°C 높으며 낮 최고기온은 섭씨 30도 초중반이어서 가뭄이 악화되었다. 파라과이에서도 기후가 유사하였다. 그러나 주산지인 브라질 중부지역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충분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다. 브라질 중부 및 남동부 주산지(마투구루수에서 미나스제라이스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내륙 북동부(바히아 서부, 토칸티스, 피아우이 인근지역, 마라냥)에는 국지적으로 호우(강수량 25~100mm 이상)가 내려 대두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1~2°C 높으며 낮 최고기온은 섭씨 30도 초중반이다. 브라질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서부 지역(마투구루수, 고이아스, 마투구루수두술 북부)에서 대두 수확이 진행 중이며 수확이 끝난 농지에는 곧바로 옥수수(safrinha: 겨울에 재배하는 옥수수)를 파종하고 있다고 한다.